

제 1강. 교회론과 목회철학

1 부. 성경적인 교회론

1. 성경적인 교회론으로 돌아가라.

어떤 목회자가 목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듯 어떤 교회론을 가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과 성격이 달라진다.

교회론은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회론이 달리 표현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교회론의 뼈대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론의 거품을 빼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회관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교회관을 모델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수님의 교회관 (마 16장 13-20절)

1) 신앙고백이 분명한 성도 공동체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3)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4)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전도 공동체 (마 16: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3. 사도행전의 교회관

1)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령 공동체 (행2:1-4)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행4: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3) 제자들을 세우는 양육친교 공동체 (행2:37-4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 공동체 (행4:32-37)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5)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행13:1-3,1:8)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 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13:1-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4. 서신서의 교회관

1)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엡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 성도의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엡5:25-32).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엡4:7-11).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4) 교회는 연합과 일치 공동체이다 (엡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5) 교회는 성도를 세우는 곳이고, 성도인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곳이다(엡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서울 한복판으로 뛰어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라.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단숨에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이다.

제 2 부.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한 건강한 목회철학

1. 목회철학은 왜 중요한가 ?

성경적인 교회론에 기초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회의 뼈대와 지침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리켜 목회철학이라고 한다. 교회론이 원리라면 목회철학은 방법이다.

성경적인 교회론은 다 같지만, 목회철학은 목회자의 부름에 따라, 성도의 부름에 따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부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철학이 없이 목회 하는 것은 마치 설계도면 없이 마구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2. 건강한 목회철학을 구축하라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교회를 말한다.

건강한 목회철학은 성경적인 교회론에서 나온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는 교회는 바로 건강한 목회철학을 가진 교회이다.

3. 종교개혁과 목회철학의 변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만인 제사장이란 큰 타이틀을 걸고 교회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아직도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미완성의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최근 2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진리들을 서서히 회복하는 영적운동과 사역들이 있어 왔다.

예를 들면 ▷영적대각성 ▷선교의 열정회복 ▷전도사역 ▷기도사역 ▷제자도 ▷사회참여 ▷금후사역 ▷Q.T와 일대일 사역 ▷가정사역 ▷내적치유와 상담사역 ▷경배와 찬양 ▷비전과 지도력 ▷성령사역 등이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은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복음주의 학생단체나 선교단체 그리고 Para Church에서 발견된 보물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사역들은 초기에는 오히려 교회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외면되어 왔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거의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에 의해 환영받고 발전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헌신된 평신도 사역」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헌신된 평신도들에 의해 움직여 왔고 사역의 꽃을 피워 왔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선교단체의 선교사 가운데 직업적인 성직자보다 헌신된 평신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4. 목회철학의 새바람

이제 교회들은 이러한 생동적이고 자발적인 평신도들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은 교회 안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성직자들 중심의 사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점차적으로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교회론에 대한 일대 개혁이요, 혁명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신도 중심」 또는 「선교나 사역중심의 교회」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처 발견하고 발전시키지 못한 채 땅 속에 깊이 묻어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교회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성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부동의 자리를 고수하면서부터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다.

5. 건강한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 즉 건강한 교회의 몇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인 교회론이다.

둘째, 성경적인 교회론에 기초한 목회철학이다.

셋째, 성령충만한 예배와 찬양이다.

넷째, 충만한 예배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있는 사역이다.

다섯째, 설교와 가르침이다.

여섯째, 양육체계이다.

일곱째, 한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정이다.

여덟째, 미전도종족을 향해 땅끝까지 달려나가는 선교이다.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충족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령사역이다.

둘째, 치유사역이다.

셋째, 영적전쟁사역이다.

넷째, 기도사역이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이며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성직자 중심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